

황선우, 아! 마지막 50m... 그래도 한국수영 미래 밝혔다



‘뉴 마린보이’ 황선우(18·서울체고)의 자유형 200m 메달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첫 올림픽에서 결승 진출을 이룬 황선우는 자유형 100m 예선에서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수영 미래를 밝혔다.

황선우는 27일 오전 열린 2020도쿄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26으로 7위를 기록했다.

150m까지는 황선우가 주인공이었다. 50m를 가장 빠른 23초95에 찍은 황선우는 100m(49초78), 150m(1분16초56)까지 1위로 통과하면서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하지만 막판 스피드에서 밀려 7위로 결승을 마감했다.

예선보다 0.64뒤진 기록, 황선우는 지난 25일 예선에서 1분44초62에 레이스를 끝내며 한국신기록·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작성했다. 26일 준결승에서는 1분45초53를 기록하며 2초 5위, 전체 6위로

자유형 200m서 150m까지 1위 막판 스피드 밀리며 7위로 마감 100m 예선서 또 한국신기록 전체 6위로 준결승 진출

결승행을 확정했다.

7라인의 황선우가 이끈 레이스, 양옆에서 역영을 펼친 영국의 톰 딘(6라인)과 브라질의 페르난두 세페르(8라인)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의 주인공이었다.

톰 딘이 1분 44초 22초의 기록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영국의 던컨 스콧이 1분 44초 26으로 은메달, 페르난두 세페르가 1분 44초 66으로 동메달을 가져갔다.

기대했던 메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황선우는 9년 만에 한국 수영 결승 역사를 이었다.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유선이가 여자 개인혼

영 400m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의 불모지였던 수영 종목에 새 역사를 열었다.

2008년에는 박태환이 한국의 수영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자유형 200m에서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경쟁 끝에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태환은 2012년 런던 대회에서도 자유형 400m와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9년이 지나 한국의 새로운 마린보이가 올림픽 물살을 가르며, 한국수영에 새 희망이 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진행된 남자 100m 자유형 예선에서 황선우는 이번 대회 두 번째 한국신기록을 만들었다. 황선우는 47초 97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기록 48초 25를 경신했다.

황선우는 지난해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이 2014년 작성한 48초 42를 깼었다.

6위로 예선을 통과한 황선우는 28일 오전 100m 준결승에 나서고, 30일 오후에는 자유형 50m에 출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クス센터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서 황선우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노메달’로 끝난 진중오의 5번째 올림픽

한국선수 최다 메달 불발

새로운 역사를 준비했던 진중오(42·서울시청)가 ‘노메달’로 자신의 5번째 올림픽을 마감했다.

진중오는 추가은(20·IBK기업은행)과 호흡을 맞춘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575점(추가은 286점, 진중오 289점)으로 9위를 기록, 8명이 다투는 본선 2차전 티켓을 얻지 못했다.

진중오-추가은은 이란의 자바드 포로기-로스타미안 하나예와 나란히 575점을 기록했지만, 10점 획득 수에서 밀려 9위에 랭크됐다

지난 24일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해 15위에 머물렀던 진중오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결선 진출을 이루지 못하면서 한국선수 최다 메달 기록 도전을 아쉽게 마무리했다.

진중오는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4번의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장식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양궁 김수영(6개·금4·은1·동1)을 넘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진중오가 27일 도쿄올림픽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1차전 통과에 실패한 뒤 점수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오는 3연패 위업을 달성했던 50m 권총 종목이 올림픽에서 폐지되는 아쉬움 속에 이번 대회에는 남자 10m 공기권총과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진중오는 두 종목에서 모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최다 메달 주인공 달성에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편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진출을 이뤘던 전남체고 출신의 김모세(23·국군체육부대)도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 본선 1차전에서 탈락했다.

김보미(23·IBK기업은행)와 짝을 이룬 김모세는 합계 573점을 기록, 11위로 본선 2차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그 중단 KBO, 하반기 연장전 폐지

준PO·PO 2선승제 등 포스트시즌도 축소 운영

원칙을 깨고 리그 중단을 결정했던 KBO가 연장전 없는 후반기를 치른다.

KBO가 27일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후반기에 한시적으로 연장전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팀 당 144경기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KBO는 비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19 취소로 리그 일정에 파행을 빚었다. 또 확진자가 나온 NC·두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1주일 빠르게 전반기가 마감됐다.

이에 따라 7월 85경기가 치러져야 했지만 33경기 소화에 그치면서 후반기 진행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연장전을 없앤 KBO리그는 최대 8연전을 9연전

까지 늘렸다. 또 7~8월에는 더블헤더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8월 25일부터 더블헤더를 도입한다.

8월 25일부터 경기가 취소되면 다음날 더블헤더를 진행하거나 동일 대전 둘째 날 더블헤더를 편성한다.

포스트시즌도 축소 운영된다.

3선승제로 진행되던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2선승제로 변경된다.

또 11월 15일 이후에 편성되는 포스트시즌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중립경기로 진행된다.

한편 KBO는 지난 12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상당수 구단 대표들의 찬성 속에 ‘확진자가 나오면 대체 선수로 시즌을 이어간다’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원칙을 뒤집은 결정으로 야구팬들의 원성을 산 KBO는 일정 소화에만 급급한 ‘변칙 운영’을 도입하면서 다시 한번 리그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로텔리·김현욱·김영욱·황기욱 전남 4명 22라운드 베스트11에

전남드래곤즈의 ‘원정무패’를 이은 발로텔리·김현욱·김영욱·황기욱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이 27일 K리그2 2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부천 원정에서 2-1 승리를 거둔 전남에서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남 44분 선제골을 합작한 김영욱(도움)·김현욱(득점)과 후반 10분 추가골을 기록한 발로텔리가 명단에 포함됐다.

또 부천의 추격을 막은 수비수 황기욱도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부천전 2-1 승리로 지난 시즌부터 ‘원정 20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다. 또 승점 3점을 보태면서 2위 탈환에 성공했다.

한편 22라운드 MVP는 대전하나시티즌의 김승섭에게 돌아갔다.

김승섭은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필리핀이 울었다

‘역도 영웅’ 디아스, 블랙리스트 위협 등 역경 뚫고 사상 첫 금

눈물 포효에 국민도 함께 울어 포상금 7억5천만원에 집 선물

필리핀의 ‘역도 영웅’ 하이디린 디아스(30)가 흘린 감격의 눈물에 필리핀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디아스는 지난 26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역도 여자 55kg급 A그룹 경기에서 인상 97kg, 용상 127kg으로 합계 224kg을 들어 올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디아스는 용상 3차 시기에서 127kg을 번쩍 들어 금메달을 확정짓고 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필리핀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1924년 이후 무려 97년 만이다.

디아스는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필리핀 여자 역도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이후 자신의 3번째 올림픽이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필리핀 역도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당시 그가 따낸 은메달은 필리핀이 20년 만에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이었다.

디아스의 역도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실제 필리핀에서 단막극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디아스는 필리핀 삼보양가에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트라이시클(삼륜차) 기사부터 농부, 어부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역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년 전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후련 경비도 늘 부족해서 대기업과 스포츠 후원가들을 찾아다니며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



역도 여자 55kg급 필리핀의 디아스가 금메달을 확정짓고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야 했다. 디아스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신이 준 모든 역경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필리핀인이기에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아스가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필리핀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트윗이 10만건 넘게 포스트됐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디아스에게는 두둑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몇몇 기업은 디아스에게 3300만페소(약 7억5000만원)의 포상금과 집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모가디슈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모가디슈
3관	보스 베이비, 정글 크루즈, 랑종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4관	보스 베이비, 정글 크루즈
5관	모가디슈
6관	방법: 재차의
9관	블랙 위도우
7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더 레지트: 악령의 저주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풀	방법: 재차의, 발신제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